

寒岡 鄭述의 經學觀과 學庸解釋

崔錫起*

차례

- I. 문제의 소재
- II. 工夫論과 經學觀
 - 1. 工夫論
 - 2. 經學觀
- III. 『大學』·『中庸』의 解釋性向
 - 1. 『大學』해석의 一面貌
 - 2. 『中庸』해석의 一面貌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鄭述(1543-1620)의 工夫論과 經學觀을 개괄한 뒤 『대학』·『중용』 해석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구는 어려서부터 求道的 志向을 하여 博學과 實得을 추구하였으며, 體認·體察·體驗·體行의 공부를 견지하였다. 또한 내면공부에 힘써 思無邪·毋自欺·慎其獨 등을 중시하였으며, 敬을 聖學의 근본으로 보아 敬工夫에 주력하였다. 정구는 道問學·尊德性의 공부를 병행하되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敬을 바탕으로 한 存養·省察을 중시하는 經學觀을 견지하였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心經』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 敬의 의미를 발휘하여 『心經發揮』를 편찬하였다. 정구의 학문은 '敬' 한 자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로 집약되는데 『심경발휘』를 통해 드러내었다. 그는 程敏政의 『心經附註』를 개편하였는데, 가장 큰 특징이 三經·四書·宋儒說을 卷別로 분류하여 心學의 연원과 체계를 명료하게 구별한 점과 四書의 배열도 心之體와 心之用に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구별한 점이다.

정구의 『대학』해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심경발휘』 誠意章의 주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17조를 삭제하고 18조를 보충하였는데, 삭제한 설은 天德·誠·自欺 등 형이상학적 내용인 반면, 보충한 설은 毋自欺·愼其獨 등 구체적 실천에 관한 내용이다. 또 正心章의 주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37조를 삭제하고 25조를 보충하였는데, 삭제한 설은 정심장과 관련된 범범한 내용이고, 보충한 설은 정심공부의 핵심인 四有所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行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점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집에 산견되는 『대학』해석의 특징은, 主敬을 바탕으로 한 誠意·正心の 실천공부를 중시하며, 誠意章 해석에서 毋自欺 등 심성수양을 중시하며, 正心章 해석에서 心之體에 관한 存養工夫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며, 齊家治國章 해석에서 齊家に 중점을 두어 化만 말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정구의 『중용』해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심경발휘』에 수록된 제1장의 주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9조를 삭제하고 50조를 새로 발췌해 놓았는데, 삭제한 설은 未發已發에 대한 설이고, 보충한 설은 戒懼·愼獨·中和에 관한 설이다. 특히 未發의 戒愼恐懼와 已發의 愼獨을 存養·省察의 공부로 중시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 고찰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음 『중용장구』 제33장 제2절·제3절의 해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3조를 삭제하고 5조를 새로 보충하였는데, 삭제한 설은 이 2절과 연관성이 적은 내용이고, 보충한 설은 愼獨과 戒愼恐懼에 관한 내용이다. 문집에 산견되는 『중용』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전대의 설보다 더 심층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으며, 大全本小註의 설과 文句의 字義를 정밀히 해석하는 성향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鄭述, 工夫論, 經學觀, 『心經發揮』, 『대학』해석, 『중용』해석.

I. 문제의 소재

寒岡 鄭述(1543-1620)는 李滉과 曹植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퇴계학과 남명학을 종합해 성취한 인물로 평가되며, 근기 남인계 학통이 정구에게서 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구는 博學을 추구하여 시문집 외에도 성리학·예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이러한 그의 학술에 대해, 李佑成 선생은 宏博의 博學性과 應用救時的 經世致用性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거론하였다.¹⁾

정구의 학술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한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²⁾ 그런데 정구의 經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그것은 경학 방면의 저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정구의 경학을 전혀 엿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心學을 대표하는 『心經發揮』 및 禮學을 대표하는 『五先生禮說分類』·『五服沿革圖』 등에서 경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정구의 경학관 및 『대학』·『중용』의 해석을 고찰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서해석의 논의범위를 『대학』·『중용』으로 한정된 것은 『논어』·『맹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정구의 학문자세, 독서방법, 학문지향 등을 통해 공부론과 경학관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집의 답문 및 『심경발휘』 등에 산재한

1) 李佑成, 『寒岡全集 解題』, 『寒岡全集』, 여강출판사, 1985, 1~10쪽 참조.

2) 정구의 학술에 대해 연구사를 정리한 것은 우경섭의 「제2장 정구 정구의 학문연원과 도통적 위상」(『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26~27쪽 참조.

『대학』·『중용』 관련 해석을 고찰하여 그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工夫論과 經學觀

1. 工夫論

정구는 어려서부터 성현이 되기를 기약하였으며,³⁾ 약관의 나이에 과거공부를 포기하고⁴⁾ 求道的 志向을 하였다.⁵⁾ 13,4세 때 이미 공자의 초상을 그려 벽에 걸어 놓고 예를 행하였다.⁶⁾ 이러한 지향은 13세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스승 吳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⁷⁾

정구는 학문에 뜻을 둔 뒤로 博學을 추구하여 어떤 서적이든 읽지 않는 것이 없었고, 어떤 행실이든 힘써 노력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그는 이 세상의 도리는 모두 유자들이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여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다.⁸⁾ 이런 성향 역시 남명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文緯 記. “先生自妙齡 篤志勵行 以聖賢自期”

4) 上同, 郭尙 記. “先生弱冠以後 便棄學業 嚚然以古人自期”

5) 上同, 李厚慶 記. “先生常歎時文之累 慨然有求道之志 既冠謝場屋 專意聖賢之學”

6) 上同, 李埴 記. “年十三四 摹畫先聖遺像 展壁行禮 人或有謾而戲之者 則輒呵止之曰 先聖在此 何敢乃爾”

7) 남명 조식은 산천재에 기거할 적에 공자·주돈이·정호·주희 네 성현의 초상을 그려 벽에 걸어놓고 예를 행하였다. 조식은 조선시대 학자들 중 가장 먼저 이런 예를 행한 인물이다.

8) 上同, 文緯 記. “志學以來 勤劬刻苦 於書無所不讀 於行無所不力 於事無所不習 於藝無所不究 至於天文地理醫方 亦皆講而通之 冠婚之儀 喪祭之制 莫不精求而講明 以爲天地間道

또한 그는 “학문은 반드시 옛 것을 강론하여 밝혀야 하고, 도는 반드시 자기에게 행하여 터득해야 한다. 보고 듣는 것의 풍부함만 있을 뿐, 지식을 자신에게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꿈속의 화려한 옷과 이불을 말하는 유형이니, 또한 무엇 하겠는가.”⁹⁾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터득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런 학문정신 역시 조식이 實得을 강조한 것¹⁰⁾과 유사하다.

정구는 實得을 위한 공부 방법을 정립하였다. 그는 우선 多讀보다는 精讀과 熟讀을 택하였고¹¹⁾, 詞章을 일삼지 않고 경전의 大義를 궁구하였으며¹²⁾, 의리가 긴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그 歸趨를 끝까지 궁구하였다.¹³⁾ 그리고 그 글의 所當然과 所以然을 구하여 마음으로 體認해서 실천의 바탕을 삼았다.¹⁴⁾

그리하여 그는 네 가지 공부론을 제시하였는데, 몸으로 터득하여 認知하는 體認, 몸으로 그 점을 살피는 體察, 자신이 직접 그 앎을 경험하는 體驗, 그 앎을 몸으로 실천하는 體行이다.¹⁵⁾ 이는 몸[體]으로 하는 학문을

理 非吾儒以爲事業 更誰擔當”

- 9)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文緯 記. “先生曰 學必講諸古而明 道必行之己而得 徒有聞見之富 而不能有諸己者 說夢衣被之類 亦奚以爲”
- 10) 崔錫起, 『南冥의 成學過程과 學問精神』, 『남명학연구』 창간호,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1, 79~80쪽 참조.
- 11)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孫處訥 記. “先生曰 讀書不要多 只要精熟 不熟則不能得其義 不精則不能察其理”
- 12) 上同, 李埈 記. “先生讀書 必究大義 爲詞章不事”
- 13) 上同, 裴尙龍 記. “每閱諸書 一瞥數行 而至義理喫緊處 則必旁搜他書 參攷互證 以極其歸趨”
- 14) 上同, 郭尙 記. “先生於聖賢之書 無所不讀 而讀則必求所當然所以然而知之 知之則輒體認於心而爲踐履之地”
- 15) 上同. “先生於學者曰 所貴乎讀書者 非爲剽竊章句 以成文章 取科第而已 讀聖賢經傳 其法有四 一曰體認 二曰體察 三曰體驗 四曰體行 苟不用此四法 其義亦無以通曉 況吾身心有何益言”

추구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이런 공부를 위해 발분하여 뜻을 세우고 용맹하고 독실하게 공부하여 본체를 깊이 터득하고 실행을 힘써야 비로소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⁶⁾

정구가 몸으로 하는 공부를 강조한 것은 實踐을 엄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는 학자가 한 마디 말이라도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면 바로 이를 규찰하는 箴銘을 지어 목표로 돌이키고, 執事의 한 가지 일에 있어 털끝만큼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고치게 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¹⁷⁾ 이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의리에 맞게 실천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정신은 조식에게 敬義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더욱 돈독히 하였다.¹⁸⁾

그런데 정구가 추구한 실천공부는 근본을 두텁게 배양하는 것이었다.¹⁹⁾ 그는 조식의 敬義學이 근거한 ‘敬以直內 義以方外’를 학문의 가장 중요한 공부처로 보고 있다.²⁰⁾ ‘敬以直內 義以方外’는 敬을 통해 내면을 정직하게 하고 義를 통해 외면을 방정하게 한다는 뜻으로, 내적인 심성수양과 외적인 정의실천을 말한다. 그는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敬義齋라 하고, 마루의 이름을 景晦堂이라 하고, 다락의 이름을 忘老軒이라 하고서 敬義를 夾持하는 공부를 늙어서도 더욱 독실하게 하였다.²¹⁾ 이런 공부 자세를 보

16)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崔恒慶 記. “先生嘗曰 學者須是發憤立志 勇猛篤實 深體力行 始得”

17) 上同, 郭尙 記. “學者之一言 或過不及 輒加規箴而歸的 執事之一事 毫髮失當 必使即改而得正”

18) 上同, 李衛 記. “先生束脩往拜南冥先生之門 佩服敬義之訓 益篤踐履之功”

19) 上同, 李潤雨 記. “讀古人之書 精探力踐 涵養進修 以厚根本之地 可也”

20) 上同, 李天封 記. “先生教學者曰 敬以直內 義以方外 此學者喫緊用工之處也”

21) 上同, “先生名其所居之室曰敬義齋 堂曰景晦 軒曰忘老 其操存夾持之工 老而彌篤”

면 남명학의 영향이 짙게 스며있다.

정구는 근본을 두텁게 배양하기를 힘써 내면공부에 致力하였는데²²⁾, 특히 思無邪·毋不敬·毋自欺·慎其獨 등을 공부의 핵심으로 삼았다.²³⁾ 이는 存養하고 省察하여 動靜에 마음을 眞實無妄하게 하는 심성수양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靜坐를 하고서 放心을 수렴하는 공부를 무엇보다 우선시 하였다.²⁴⁾

이러한 정구의 공부에 있어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敬이다. 그는 「心經發揮序」 첫머리에서 “요순의 惟精惟一의 교훈이 있는 뒤로 마음을 정밀하게 하고 전일하게 하는 방법이 敬이 아니었던가. 엄숙히 上帝가 임한 듯이 하고, 경건히 군자를 벗하듯이 하며, 사악한 생각을 막고 진실한 생각을 보존하며, 분한 생각을 懲治하고 탐욕스런 생각을 막으며, 선을 보면 반드시 옮겨가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고치며, 잘못을 고치되 또한 오래 걸리지 않기를 기필하는데 이런 공부 중 어느 것인들 敬을 주로 하지 않는가.”²⁵⁾라고 하여 敬을 聖學의 根本으로 보고 있다. 그가 『심경발휘』를 편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敬의 의미를 더 발휘하기 위해서였으니, 한강학의 요체는

22)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文緯 記. “先生之學 尤爲致力於人所不見之地 而英華之發 闐然而日章”

23)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4, 李儻 撰 「遺事」. “嘗曰 學者須是發憤立志 勇猛篤實 深體力行 始得 遂將思無邪毋不敬毋自欺謹其獨 未嘗不三致意焉”

24)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李儻의 기록에 “收斂放心 是學者第一工夫也”라 하였고, 崔恒慶의 기록에 “嘗敎學者曰 須習靜坐 收斂身心 如玉藻九容 尤加着工處 緊要約束 不可有些放過”라 하였으며, 裴尙龍의 기록에 “尙龍嘗侍坐 家僮來報失鷹 欲僭僮返捷料理 搜覓先生 問遐夷遽歸 尙龍以實 先生正色曰 使君求放心之誠 常如求放鷹之切 則何患不如古之學者乎”라 하였다.

25) 鄭述, 『寒岡全集下』 『心經發揮』 「心經發揮序」. “自堯舜精一之訓 而所以精一之者 非敬矣乎 肅然如上帝之臨 惕然若君子之友 邪思閑而誠思存 忿思懲而慾思窒 善必遷而過必改 改又必於不遠 孰非以敬爲主乎”

바로 이 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敬工夫를 통해 마음을 明鏡止水처럼 맑게 하고 光風霽月처럼 맑게 하는 것이 정구의 공부론이다.²⁶⁾

2. 經學觀

정구는 기본적으로 경전에서 널리 구해 大義를 터득하는 경학관을 견지하였다.²⁷⁾ 그가 비록 『소학』에 뜻을 두고 『심경』을 존송하였지만, 그것은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었고, 기본적으로는 사서육경에 침잠하고 송대 제현의 설에서 발휘하여 도를 구하는 것²⁸⁾이었다.²⁹⁾ 정구는 독서순서로 『소학』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한다고 하였고, 다음 四書·『심경』·『근사록』·『주자대전』 등을 차례로 읽을 것을 권하였다.³⁰⁾ 그가 『심경』을 학문의 근간으로 삼았지만, 초학자들에게는 『소학』이 더 절실함을 강조하였다.³¹⁾ 정구는 『소학』 다음으로 四書에 致力하였다.³²⁾ 이 역시

26) 『心經發揮』 첫 머리에 두 장의 도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도표는 心 자를 중앙에 쓰고 그 양 옆에 明鏡止水와 霽月光風을 써 넣었다. 이것이 바로 경공부를 통해 마음을 그와 같이 하고자 한 것이다.

27)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崔恒慶 記. “先生之學 博求經傳 得其大義”

28)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4, 李竹+舒 撰 「遺事」. “乃篤志小學 尊尚心經 沈潛乎四子六經 發揮於濂洛關閩 至於啓蒙象數洪範九疇”

29) 이러한 사실은 『寒岡先生言行錄』 권1의 裴尙龍 기록에 “先生處山中 山外事節不相聞 纂述哀集之暇 輒讀聖賢經傳 陶然有自得之趣 常誦古人之語而書諸壁上曰 深山之中 築土爲宇 編蓬爲戶 彈琴鼓缶 以詠先王之風 亦足以樂而忘死矣”라고 한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0)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李潤雨 記. “初拜先生請教 先生曰 爲學急務 當先致力於小學 然後四書心經近思錄朱子大全等書 可以次第理會”

31)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崔恒慶 記. “有學者請學心經 先生曰 心經固好 然於初學 小學書尤緊切”

32) 上同. “語孟庸學 尤所致力”

이황·조식의 독서순서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정구는 『소학』과 사서를 읽고 나서 ‘靜’자와 ‘敬’자의 공부에 더욱 힘을 쏟았다.³³⁾ 이는 그가 『심경』을 所依書로 했음을 의미한다. 敬은 一心을 다스리는 공부이고, 靜은 心이 움직이기 전의 未發을 말한다. 경공부는 動靜을 관통하는데, 靜時에는 存養을 하고, 動時에는 省察을 하며, 幾微가 발견되면 즉시 물리쳐 본원을 회복하는 것이 克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구가 ‘靜’자와 ‘敬’자의 공부에 더욱 힘을 쏟은 것은 존양-성찰-극치 가운데 근원적인 존양에 주력했다는 말이다. 정구의 詩를 일별해 보면, 「甲申春帖」의 ‘閉門終日養吾眞’, 「題社倉新構」의 ‘志存容膝更無加’, 「曉起偶吟」의 ‘壽聲前後壯 時向靜中聞’ 등처럼 정적인 가운데 존양하고자 하는 意境을 노래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구의 경학관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이 自得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문인 崔恒慶은 “선생께서 학자들을 가르칠 적에 ‘독서는 반복해서 외운 뒤 침잠해서 그 뜻을 완미하고 탐색하여 자득하길 구해야 한다.’라고 하셨다.”라고 하였다.³⁴⁾ 이는 鄭仁弘이 조식의 학문에 대해 “학문은 반드시 自得으로 귀함을 삼았다. 그래서 책자에 의지해 의리를 강명하여 실득이 없는 자는 끝내 마음으로 그 뜻을 수용하여 터득함을 보지 못한다.”³⁵⁾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조식은 自得을 중시하고 致用과 實踐을 급무로 여겼는데³⁶⁾, 이는 후대 李灑이 實得을 해야 實地

33) 上同. “至於靜字敬字上工夫 益加勉勵”

34) 上同. “先生嘗教學者曰 讀書須要反覆成誦 沈潛玩索 以自得焉”

35) 曹植, 『南冥集』, 鄭仁弘 撰 「行狀」. “學必以自得爲貴 曰 徒靠冊字上 講明義理 而無實得者 終不見受用得之於心”

36) 實錄廳, 『宣祖修正實錄』 권6, 신조 5년 정월 무오일조. “植之爲學 以得之於心爲貴 致

에서 實踐하고 實用할 수 있다고 보아 自得을 특별히 강조한 경학관³⁷⁾과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문인 李天封이 기록한 「實記」에는 “선생께서는 格物致知로 進道の 문을 삼고, 正心誠意로 入德의 방법을 삼으셨다.”³⁸⁾라고 하였다. 『대학』 팔조목 중 격물·치지는 진리탐구의 知를 의미하고, 성의·정심은 修身의 行을 의미하니, 정구는 지적탐구에만 주력하지 않고 심성수양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각 경서별로 나타나는 정구의 경학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대학』에 대해 언급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은 知·行·推行을 모두 말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知에 중점을 두는 관점도 있고, 行에 중점을 두는 관점도 있고, 推行에 중점을 두는 관점도 있다. 그렇다면 정구의 관점은 어떠했을까? 정구는 1580년 창녕현감에 제수되어 사은숙매를 하였는데, 선조가 “그대가 힘을 기울인 것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신은 일찍이 『대학』에 종사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선조가 묻기를 “『대학』의 공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삼강령·팔조목은 修己·治人の 방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선유들이 ‘天德과 王道는 그 요점이 慎獨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도 신독공부가 가장 긴요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³⁹⁾

用踐實爲急”

37) 崔錫起, 「星湖의 大學·中庸 解釋과 意味」,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무늬, 2012, 26~29쪽 참조.

38)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4, 附錄, 李天封 撰 「實記」, “以格物致知爲進道之門 以正心誠意爲入德之方”

39)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李厚慶 記. “庚辰 先生拜昌寧縣監 謝恩 自上引見問 爾所着力者 何書 對曰 臣嘗從事於大學矣 問 大學工夫 何者最要 曰 三綱領八

慎獨은 『대학장구』 전 제6장(성의장)에 보이는 말로, 마음이 발한 뒤 혼자만 알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미를 성찰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서 처음에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구가 신독을 『대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말한 것은 그의 『대학』해석관이 성의·정심·수신의 行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식처럼 실천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팔조목 가운데 특히 誠意章에 중점을 두었다. 정구 역시 심성수양을 학문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독공부를 중시한 것이다.

문인 李天封이 “『대학』 한 책 가운데 어느 대목이 최초로 들어가는 곳이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정구는 대답하기를 “‘毋自欺’ 3자가 내 평생 받아들여 실천하는 대목이다.”라고 하였다.⁴⁰⁾ 毋自欺도 『대학장구』 성의장에 보이는 문구이다. 무자기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다. 誠意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진실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니, 무자기는 성의의 핵심공부에 해당한다. 이를 보아도 팔조목 가운데 성의장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대학』을 해석하는 기본 관점이다.

다음 『중용』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인 黃宗海가 朱熹와 陸九淵이 각립한 이유에 대해 묻자, 정구는 답변하기를 “주자는 존덕성·도문학 양면의 공부를 주장하여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폐지한 적이 없는데, 육상산의 학문은 존덕성 한쪽 공부를 치우치게 주장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각립하게 된 이유이다.”라고 하였다.⁴¹⁾ 존덕

條目 無非修己治人之方 而先儒曰 天德王道 其要只在慎獨 臣恐慎獨工夫 最所緊也”

40) 上同, 李天封 記. “問大學一書 何者爲最初入頭處 先生曰 毋自欺三字 是吾平生受用者”

41) 上同, 黃宗海 記. “問朱陸角立之由 先生曰 朱子主尊德性道問學兩邊工夫 未嘗偏廢 象山之學 偏主尊德性一邊工夫 此乃所以角立也”

성·도문학은 『중용장구』 제27장에 보이는 말로 存心과 致知를 말한다. 주자학은 격물치지의 知와 성의정심의 行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위 정구의 답변을 통해 보면 주자학을 수용하여 존덕성·도문학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가 『중용』을 해석하는 기본 관점이다.

다음 『논어』 해석의 관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寒岡先生言行錄』 권1의 李瑩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 일찍이 선생에게 『논어』를 받아 읽었는데,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논어』가 어떤 책인지 아느냐? 이 책은 곧 학자들이 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慈良之心이 아련히 피어오르게 한다. 그러나 자신을 선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책을 놔두고 무엇으로써 구하겠는가. 그러므로 주자께서 학자들을 가르칠 적에 오로지 이 책으로 초학의 指南을 삼았다. 그런데 오늘날 이 책을 배우는 자들은 단지 音釋·句讀의 말단적인 데에 집착하여 훗날 과거시험의 자료로 삼을 뿐, 다시는 성인이 가르침을 베푸는 방도에 마음을 두고서 스스로 身心을 수렴하는 터전으로 삼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탄식할 만하다.”라고 하셨다.⁴²⁾

② 또 말씀하기를 “『논어』는 辭意가 정밀하고 명확하니, 능히 그 말을 완미하고 그 의미를 연역하면 身心을 다스리는 功效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문리를 통하는 첩경일 것이다.”라고 하셨다.⁴³⁾

42) 上同, 李瑩 記. “嘗受論語於先生 先生曰 若知論語之爲書乎 乃學者入道之門戶也 讀之 使人慈良之心 藹然而生 欲善其身者 舍是書 何以哉 是故 朱門訓學者 專以是書爲初學之指南 今之學是書者 但區區於音釋句讀之末 爲他日科舉之資 而無復留意於聖人設教之方 作自家收斂身心之地 良可歎也”

43) 上同. “又曰 論語之書 辭意精明 苟能玩其辭釋其意 則不但爲治身心之功用 亦是通文理之蹊逕”

①은 『논어』가 초학의 指南으로 身心을 수렴하는 터전이 된다는 말이고, ②는 『논어』가 身心을 다스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문리를 통달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이 두 자료를 통해 볼 때, 정구는 身心을 수렴하여 慈良之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논어』 해석의 기본관점으로 하고 있다. 정구의 『맹자』에 대한 해석의 관점은 살펴볼 만한 자료가 없다.

삼경 가운데는 『주역』에 관해 언급한 것이 있는데, 언행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선생이 경연에 참석하셨을 때, 상께서 질문하시기를 “『주역』 程子の 傳과 朱子の 本義 중 어느 것을 먼저 읽고 어느 것을 뒤에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자, 당시 관료 자리에 있던 金時獻이 아뢰기를 “주자의 본의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주역』의 도리는 소멸하고 생식하며 가득차고 텅 빈 이치와 나아가고 물러나며 말하고 침묵하는 기미를 밝혀 時中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단지 점을 쳐서 미리 아는 것을 일삼을 뿐이라면 이는 『주역』의 말단적인 것입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정자의 전을 먼저 읽고 주자의 본의를 나중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⁴⁴⁾

『주역』의 程傳은 義理學으로 해석한 것이고, 주희의 本義는 象數學으로 해석한 것이다. 『주역』을 해석하는 시각은 의리학과 상수학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정구는 성현의 본지를 밝히는 의리학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역』을 해석의 기본관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구는 사서육경에서 성현의 도를 널리

44) 鄭述, 『寒岡全集下』 『寒岡先生言行錄』 권1, 李厚慶 記. “先生於經筵 上問 周易程傳本義 何先何後 時金時獻在僚席曰 本義當先 先生曰 易之道 惟明乎消息盈虛之理 進退語默之幾 以不失乎時中也 徒以占候前知爲事 則此易之末也 臣意當先程傳而後本義也”

구하고, 自得을 중시하며 도문학과 존덕성의 공부를 병행하되, 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敬을 바탕으로 한 存養-省察을 중시하는 경학관을 견지하였다고 하겠다.

Ⅲ. 『大學』·『中庸』의 解釋性向

정구는 경전해석에 관한 별도의 저술을 남긴 것이 없다. 문집 속의 편지글에 경전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산견되고, 『심경발휘』 등에 사서삼경의 몇 장에 대한 역대 해석을 발췌해 놓은 것이 전할 뿐이다. 문집의 편지글에 보이는 것은 단편적인 字句解釋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구의 『대학』·『중용』 해석의 전모를 다 밝히기는 어렵고, 그 일면모를 확인하여 그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황은 「心經後論」에서 程敏政이 편찬한 『心經附註』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經文이 성현의 大訓이고, 주석도 송대 현인들의 설에서 취한 至論이므로 자신은 이 책을 神明처럼 공경하고 父母처럼 존중한다고 하였다.⁴⁵⁾ 그러나 정구는 스승의 견해와는 달리 『심경부주』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개편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체제를 개편하고서 주석을 刪削하고 補充하였다. 우선 체제를 개편한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5) 李滉, 『退溪集』 권41, 雜著, 「心經後論」. “其經則自詩書易以及于程朱說 皆聖賢大訓也 其註則由濂洛關閩 兼取於後來諸賢之說 無非至論也 -중략- 許魯齋嘗曰 吾於小學 敬之如神明 尊之如父母 愚於心經亦云”

〈표 1〉 『心經附註』와 『心經發揮』의 편차 비교

心經附註 編次		心經發揮 編次		
권1	01 書經 人心道心章(「大禹謨」)	권1	01 書經 人心道心章(「大禹謨」)	
	02 詩經 上帝臨女章(大雅 「大明」)		02 詩經 上帝臨女章(大雅 「大明」)	
	03 詩經 視爾友君子章(大雅 「抑」)		03 詩經 視爾友君子章(大雅 「抑」)	
	04 周易 閑邪存誠章(乾卦 「文言」)		04 周易 閑邪存誠章(乾卦 「文言」)	
	05 周易 敬以直內章(坤卦 「文言」)		05 周易 敬以直內章(坤卦 「文言」)	
	06 周易 懲忿窒慾章(損卦)		06 周易 懲忿窒慾章(損卦)	
	07 周易 遷善改過章(益卦)		07 周易 遷善改過章(益卦)	
	08 周易 不遠復章(復卦, 「繫辭傳下」)		08 周易 不遠復章(復卦, 「繫辭傳下」)	
	09 論語 子絕四章(「子罕」)		권2	09 論語 子絕四章(「子罕」)
	10 論語 顏淵問仁章(「顏淵」)			10 論語 顏淵問仁章(「顏淵」)
	11 論語 仲弓問仁章(「顏淵」)			11 論語 仲弓問仁章(「顏淵」)
	12 中庸 天命之謂性章(장구 제1장)			12 中庸 天命之謂性章(장구 제1장)
	13 中庸 詩云潛雖伏矣章(장구 제33장)			13 中庸 詩云潛雖伏矣章(장구 제33장)
권2	14 大學 誠意章(장구 전 제6장)	권3	14 大學 誠意章(장구 전 제6장)	
	15 大學 正心章(장구 전 제7장)		15 大學 正心章(장구 전 제7장)	
	16 禮記 禮樂不可斯須去身章(「樂記」)		16 禮記 禮樂不可斯須去身章(「樂記」)	
	17 禮記 君子反情和志章(「樂記」)		17 禮記 君子反情和志章(「樂記」)	
	18 禮記 君子樂得其道章(「樂記」)		18 禮記 君子樂得其道章(「樂記」)	
	19 孟子 人皆有不忍人之心章(「公孫丑上」)		19 孟子 人皆有不忍人之心章(「公孫丑上」)	
	20 孟子 矢人函人章(「公孫丑上」)		20 孟子 矢人函人章(「公孫丑上」)	
	21 孟子 赤子之心章(「離婁下」)		21 孟子 赤子之心章(「離婁下」)	
	22 孟子 牛山之木章(「告子上」)		22 孟子 牛山之木章(「告子上」)	
권3	23 孟子 仁人心章(「告子上」)	28 孟子 魚我所欲章(「告子上」)		
	24 孟子 無名之指章(「告子上」)	23 孟子 仁人心章(「告子上」)		
	25 孟子 人之於身也兼所愛章(「告子上」)	24 孟子 無名之指章(「告子上」)		
	26 孟子 鈞是人也章(「告子上」)	25 孟子 人之於身也兼所愛章(「告子上」)		
	27 孟子 飢者甘食章(「盡心上」)	26 孟子 鈞是人也章(「告子上」)		
	28 孟子 魚我所欲章(「告子上」)	27 孟子 飢者甘食章(「盡心上」)		
	29 孟子 鷄鳴而起章(「盡心下」)	29 孟子 鷄鳴而起章(「盡心下」)		

	30 孟子 養心章(『盡心下』)		30 孟子 養心章(『盡心下』)
	31 周子 養心說(張宗範의 정자에 지은 설)		31 周子 養心說(張宗範의 정자에 지은 설)
	32 周子 聖可學章(『通書』)		32 周子 聖可學章(『通書』)
	33 程子 視聽言動四箴(『논어집주』에 인용)		33 程子 視聽言動四箴(『논어집주』에 인용)
	34 范氏(范浚) 心箴(『맹자집주』에 인용)	권4	34 范氏(范浚) 心箴(『맹자집주』에 인용)
	35 朱子 敬齋箴(『晦庵集』)		35 朱子 敬齋箴(『晦庵集』)
	36 朱子 求放心齋箴(『晦庵集』)		36 朱子 求放心齋箴(『晦庵集』)
	37 朱子 尊德性齋銘(『晦庵集』)		37 朱子 尊德性齋銘(『晦庵集』)
부록	程敏政의 心經後序	부록	周敦頤의 太極圖說
	汪祚의 心經後序		程顥의 定性書
			程頤의 顔子好學論
			張載의 西銘
			朱熹의 仁說
			朱熹의 誠論(中庸或問)
			程頤의 明道先生行狀略
		黃榦의 晦庵先生行狀略	

정구가 체제를 개편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經·四書·宋儒說을 卷別로 분류하여 心學의 淵源과 體系를 명료하게 구별하였다. 둘째, 四書의 배열도 心之體를 말한 부분[권2]과 心之用을 말한 부분[권3]으로 나누어 구별하였다. 셋째, 제28장 魚我所欲章은 本心을 말한 것이므로 良心을 말한 牛山之木章 뒤로 옮겨 놓았다. 넷째, 기왕의 부록문자를 삭제하고 송대 심학의 핵심에 해당하는 글을 부록에 보충해 놓았다.

정구는 체제를 개편한 뒤, 程敏政이 붙인 ‘附註’의 대부분 및 정민정의 ‘按說’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설을 보충해 놓았다.⁴⁶⁾ 정민정의 부주에는

46) 전재강, 『제5장 『심경발휘』에 나타난 정구 심학의 특성 - 『심경부주』와의 대비적 관점에서 -,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2, 158~164쪽 참조.

禪學에 물들었다고 하는 程子 문인들의 설 및 원대 吳澄 등의 설이 들어 있다. 정구가 부주의 설을 대부분 삭제하고 주희 등의 설을 보충해 놓은 것은 주자학을 근간으로 하여 송대 심학을 새로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심경발휘』와 『심경부주』의 주석을 비교 검토하면 정구의 해석성향을 엿볼 수 있다.

1. 『大學』해석의 一面貌

1) 『심경발휘』의 해석

『심경부주』 권2에는 『대학장구』 전 제6장(誠意章)과 제7장(正心章)이 수록되어 있다. 정구는 『심경발휘』를 편찬하면서 체제를 개편하였는데, 『대학』에서 발취한 이 2장은 권3에 수록하였다. 그것은 心之用に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구가 『심경부주』의 주석을 삭제한 것과 『심경발휘』에 새로 발취해 놓은 설을 비교하면 어디에 중점을 주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성의장 해석에 관한 설을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誠意章

인용 주석	心經附註	心經發揮	출전	비고
朱子曰獨者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	○	○	대학장구 성의장	
○鄭氏曰厭讀爲黯黯閉藏貌也	○		禮記註疏 권42 大學	삭제
○又曰厭然銷沮閉藏之貌此言	○	○	대학장구 성의장	
○又曰心無愧怍則廣大寬平	○	○	대학장구 성의장	
○附註:程子曰有天德便可語王道	○	○	二程遺書 권14	'附註' 표시 삭제
○朱子曰有天德便是天理便做得	○	○	주자어류 권36	

○雙峯饒氏曰天德卽正心修身	○		대학장구대전 성의장 소주	삭제
○又曰有人胸中常若有兩人焉	○		二程遺書 권2下	삭제
或問方持志之時二者猶交戰于	○		南軒集 권32 「答胡季隨」	삭제
○又曰欲知得與不得於心氣上	○		二程遺書 권2上	삭제
按:所撫二條皆誠意章事然皆以	○		心經附註 按	삭제
○劉忠定公見溫公問盡心行己之要	○		御定孝經衍義 권89	삭제
朱子曰誠之爲言實也然經傳用之	○	○	晦庵集 권64 「答或人」	뒤로 옮김
○西山眞氏曰溫公之所謂誠主於	○		西山讀書記 권17	뒤로 옮김, 내용 보충
○蘭溪范氏曰人心至難測也孰不	○		大學翼眞 권6	삭제
按:范氏莫知其師承而朱子於其	○		心經附註 按	삭제
○問劉棟看大學自欺之說如何	○		주자어류 권16	삭제
又曰自欺只是自欠了分數	○		주자어류 권16	삭제
○問自欺曰謂心之所發不知不覺地	○		大學通 誠意章 小註	삭제
○又曰誠於中形於外那箇形色氣	○		주자어류 권16	삭제
○又曰學者須是爲己譬如喫飯	○		주자어류 권8	삭제
○又曰誠意是人鬼關過此一關	○	○	주자어류 권15	뒤로 옮김
雲峰胡氏曰此章分別君子小人	○		大學通 성의장	삭제
○趙致道問於朱子曰云誠無爲	○		회암집 권59 「答趙致道」	삭제
誠幾圖	○		회암집 권59 「答趙致道」	삭제
按:周子之所謂誠雖與大學指異	○		心經附註 按	삭제
○邵子曰思慮一萌鬼神得而知之		○	性理大全書 권12 觀物外篇	보충
○朱子曰天下之道二善與惡而已		○	大學或問 전 제6장	보충
○又曰君子小人之分却在誠其意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自欺是箇半知半不知底人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自欺只是知得善好要爲善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只今有一毫不快于心便是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人固有終身爲善而自欺者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誠意只是表裏如一若外面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大學一書豈在看他言語正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凡惡惡之不實爲善之不勇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所謂毋自欺者正當於幾微		○	御覽朱子全書 권8 「大學二」小註	보충
又曰論自欺細處且如爲善自家也		○	주자어류 권18	보충
又曰十目所視十手所指不是怕人		○	西山讀書記 권17	보충
又曰顔子請事斯語曾子戰戰兢兢		○	주자어류 권16	보충
○問孟子所論浩然之氣其原出於此		○	주자어류 권18	보충
又曰誠意是人鬼關過此一關	○	○	주자어류 권15	앞에서 옮김
又曰誠意以敬爲先		○	주자어류 권15	보충
○又曰意誠便全然在天理上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誠之爲言實也然經傳用之	○	○	회암집 권64 「答或人」	앞에서 옮김
○西山眞氏曰元城劉公問學道從何		○	西山讀書記 권17	앞에서 옮김, 내용 보충

이를 보면 『심경부주』의 설 4조는 그대로 두고, 3조는 위치를 이동하고, 17조는 삭제하였으며, 새로운 설 18조를 받쳐 보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삭제한 설은 天德·誠·自欺 등 성의장과 관련된 범범한 내용인 반면, 보충한 설은 誠意와 관련된 毋自欺·愼獨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팔조목은 格物·致知之 知, 誠意·正心·修身의 行, 齊家·治國·平天下의 推行으로 구분한다. 知는 진리를 탐구하여 善惡·是非·邪正을 분별하는 것이고, 行은 앎을 실천하여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고, 推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화를 미쳐나가는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 『대학』을 해석할 적에 이 知·行·推行 가운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해석의 시각이 달라진다. 예컨대 丁若鏞은 推行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 반면, 曹植은 誠意章을 매우 중시하여 入德門 또는 人鬼關으로 강조하였다. 이런 성향으로 볼 때, 정구의 시각은 行에 중점을 두되 실천적인 면에 더 치중하고 있어 스승 조식의 관점과 유사하다.

誠意에 대해 주희는 “誠은 實의 뜻이고, 意는 心之所發이다.”⁴⁷⁾라고 주석하였는데, 이는 ‘마음속에 싹튼 생각을 선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意는 마음속에 싹튼 생각으로 선·악 어디로든지 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신공부의 첫머리에 성의를 말한 것이다. 팔조목의 성의·정심·수신은 모두 마음이 발하고 난 뒤의 省察에 초점을 맞추어 修身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心之用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부이고, 心之體에 해당하는 내용은 正心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의장은 실천적인 수신공부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그 변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의장의 공부는 毋自欺에 핵심이 있고, 무자기의 요점은 ‘慎其獨’ 3자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구가 附註에서 삭제한 설은 이러한 성의장 공부에 긴요하지 않은 내용들이고, 보충해 놓은 설은 이런 성의장 공부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 마디로 毋自欺·慎其獨과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정심장 해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역시 『심경부주』의 주석 가운데 삭제한 것과 『심경발휘』에 새로 보충해놓은 주석을 비교하면 그 특징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3〉 正心章

인용 주석	心經附註	心經發揮	출전	비고
朱子曰四者皆心之用而人所不能	○	○	대학장구 정심장	
○又曰心有不存則無以檢其身	○	○	대학장구 정심장	
○附註:程子曰中有主則實實則外	○		性理大全書 권33	삭제

47) 朱熹, 『大學章句』經一章 註. “誠 實也 意 心之所發也”

朱子曰今一念之間中無私主	○		晦庵集 권45 「答廖子晦」	삭제
○又曰敬則內欲不萌外誘不入	○		회암집 권45 「答廖子晦」	삭제
○按:此下所摭程張論心之說	○		心經附註:此下所摭程張	삭제
○又曰心不可有一事	○		二程遺書 권3	삭제
明道先生在澶州修橋少一長梁	○		心經 元註	삭제
○問凡事須思以後通安可謂心	○		주자어류 권96	삭제
○東萊呂氏曰所謂無事者非終日	○		東萊集 別集 권10	삭제
○又曰閱機事之久機心必生蓋方	○		二程遺書 권3	삭제
朱子曰心不可一物外面酬酌萬變	○		주자어류 권16	뒤로 옮김
○東萊呂氏曰熹事則方寸不凝定	○		東萊集 別集 권10	삭제
○張子曰正心之始當以己心爲嚴師	○		性理大全書 권46	삭제
西山眞氏曰多者思慮紛雜之謂	○		西山讀書記 권3	삭제
○問大學誠意如何便可以平天下	○		龜山集 권12	삭제
○朱子曰古人言志帥心君須心有主	○		주자어류 권12	삭제
○又曰人只有箇心若不降伏得更做	○		주자어류 권12	삭제
○又世俗之學所以與聖賢不同者	○		주자어류 권8	삭제
○一日因論讀大學諸生答以每爲念	○		주자어류 권118	삭제
○問忿懣章曰這心之正却如秤一般	○		주자어류 권16	삭제
○問憂患恐懼四字似一般曰不同	○		주자어류 권118	삭제
仁山金氏曰忿懣恐懼好樂憂患四	○		大學疏義(金履祥 著)	삭제
○張思叔詬罵僕夫伊川先生曰何	○		西山讀書記 권2	삭제
按:此下所摭六條記伊川先生正心	○		心經附註 按	삭제
○伊川先生曰呂與叔有詩云學如	○		二程遺書 권18	삭제
○問獨處一室或行閣中	○		二程遺書 권18	삭제
○伊川涪陵之行過	○		二程外書 권12	삭제
○又曰古人有捐軀隕命者	○		二程遺書 권15	삭제
○伊川歸自涪州氣貌容色	○	○	二程外書 권12	뒤로 옮김
太常藏格撰識議曰伊川先生之學	○		延祐四明志 권5 「藏格」	삭제
○按:藏氏所論敬與章句不合	○		心經附註 按	삭제
○朱子曰某之氣質有病多在忿懣	○		주자어류 권104	삭제
按:此下所摭九條記朱子正心之學	○		心經附註 按	삭제

○王幼觀曰先生一日說及受臧者	○		주자어류 권107	삭제
○朱子曰某舊時亦要無所學	○		주자어류 권104	삭제
○問每有喜好適意底事	○		주자어류 권 115	삭제
○又曰風俗尚貴如新安等處	○		주자어류 권3	삭제
○問人患多懼雖明知其不當懼	○		주자어류 권120	삭제
○僞學黨作或勸先生散學徒	○	○	주자어류 권107	뒤로 옮김
○有一朋友微諷云先生有天生德	○	○	주자어류 권107	뒤로 옮김
勉齋黃氏撰行狀曰先生爲學	○		勉齋集 권36	삭제
○按:黃氏所記朱子心學甚精	○		心經附註 按	삭제
○程子曰人心不得有所繫 問有所		○	二程遺書 권11, 권19	보충
○問既謂之忿懣憂患如何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舜之誅四凶怒在四凶		○	二程遺書 권18	보충
○又曰忿懣怒也治怒爲難治懼		○	二程遺書 권1	보충
○又曰人患乎懼怯者蓋氣不充		○	二程遺書 권1	보충
○又曰有恐懼心亦是燭理不明		○	二程遺書 권3	보충
○又曰怒驚皆是主心不定		○	二程遺書 권6	보충
○又曰人之於患難只有一箇處置		○	二程遺書 권2上	보충
○朱子曰人之一心湛然虛明		○	대학후문 성의장	보충
○又曰四者人所不能無也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正心却不是將此心去正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四者心之所有但不可		○	주자어류 권16	보충
○問人之心要當不容一物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人心本是湛然虛明事物之來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喜怒哀懼都是人合有底		○	주자어류 권16	보충
○又曰血氣之怒不可有義理之怒		○	주자어류 권13	보충
○又曰心不可有一物外面酬酢	○	○	주자어류 권16	앞에서 옮김
○問忿懣好樂在我之事		○	주자어류 권118	보충
○又曰困厄有輕重量有小大		○	주자어류 권13	보충
○問或問云必先持志守氣		○	주자어류 권18	보충

○問聖人恐無怒容否 西山眞氏曰朱子曰 怎生無怒		○	西山文集 권30 「問正心修身章」	보충
明道先生嘗被旨赴中書議事		○	二程遺書 附錄	보충
○伊川先生貶涪州		○	二程外書 권12	보충
○伊川責涪注周易與門弟子		○	伊洛淵源錄 권4	보충
○伊川歸自涪州氣貌	○	○	二程外書 권12	앞에서 옮김
○季通被罪臺謂及先生		○	주자어류 권107	보충
○有微諷云先生有天生德	○	○	주자어류 권107	앞에서 옮김
○或勸先生散了學徒閉門戶	○	○	주자어류 권107	앞에서 옮김
○當諸公攻僞學之時		○	주자어류 권107	보충

정구는 『심경부주』의 설 2조는 그대로 두고, 4조는 위치를 이동하고, 37조는 삭제하였으며, 새로운 주석 25조를 발췌하여 보충해 놓았다. 삭제한 설은 정심장과 관련된 범범한 내용이며, 보충한 설은 정심공부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른바 四有所에 관한 내용이다.

四有所는 마음에 남아 있는 忿懣·恐懼·好樂·憂患의 감정을 가리킨다. 이 네 가지 감정은 모두 心之用으로 누구나 없을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살피지 않으면 欲動情勝하여 正其心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심장의 공부는 浮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감정을 성찰하여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敬以直內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심장에는 마음이 움직인 뒤의 성찰에 초점을 맞추어 이 네 가지 감정을 살피는 것만 말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心之用이 이에 끌려가지 않도록 心之體가 常存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常存敬畏를 본체공부로 삼는다.

정구가 보충한 설을 보면, 대개 이 네 가지 감정을 성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거의 모두 程朱의 설이다. 이를 보면 마음을 수양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해석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타 단편적인 해석

『심경발휘』 외에 정구가 『대학』을 해석한 단편적인 내용을 수집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문집의 『대학』 해석

출처	제목	내용	비고
본집 권7	答任卓爾	‘賺却’의 해석	心經附註 誠意章- ○問自欺曰…
		誠意를 물었는데 楊氏가 正心으로 답한 이유	心經附註 正心章- ○問大學誠意…
		‘便是私意是計較’의 해석	心經附註 誠意章- 朱子曰有天德…
속집 권9 答問	答問(答張德晦問)	司馬光, 徐敬德의 誠意	誠意·正心の 구별에 대한 답문
		誠意를 好善惡惡으로만 말한 이유	성의장에서 誠意를 好善惡惡으로만 말한 것에 대한 관점
		‘正其心’과 ‘不得其正’의 正자를 兼體用으로 보는 시각	정심장의 正 자에 대한 해석의 관점
		齊家治國章의 化·推에 대한 해석	제가치국장 小註 仁山金氏說에 대한 수용 여부
별집 권3 答問	答任卓爾	‘種下種子’의 해석	心經附註 正心章- ○又曰閱機事之久…
		‘若不降伏得’의 해석	心經附註 正心章- ○又曰人只有箇心…
		‘直是真箇去做’의 해석	心經附註 正心章- ○又曰世俗之學…
		‘看做甚麼事’의 해석	心經附註 正心章- ○曰一日因論讀大學…
		‘只輸顏氏得心齋’의 해석	心經附註 正心章- ○伊川先生曰呂與叔…
		‘不成屋下合說底話’의 해석	心經附註 正心章- ○僞學黨作或勸先生…

이를 다시 내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인들이 정구에게 질의한 내용은 성의장·정심장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제가치국장에 관한 1조항 뿐이다. 따라서 당시 정구와 그의 문인들의 관심사는 『대학』을 해석하면서 성의장·정심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 해석이 知·行·推行에서 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문인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각 장의 要旨와 字句解釋에 관한 것이다. 자구해석에 관한 것은 『주자어류』 등에 보이는 語錄體 문투의 諺解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당시 『주자어류』 등의 어록체 문장에 대한 정밀한 해석수준을 보여준다. 자구해석에 대해서는 『대학』의 본문이 아니고 『주자어류』의 문장에 관한 것이며, 또한 특별히 거론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한강집』 속집 권9에는 『대학』의 성의·정심에 대해 張顯光이 李珥의 설을 인용하여 질의한 것에 답한 내용이 있다.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성의를 ‘眞爲善而實去惡’으로 해석하고 정심을 마음에 偏係·期待·留滯가 없고 浮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정심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며, 둘째는 司馬光은 진실한 성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徐敬德이 참된 성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⁴⁸⁾

이 질문에 대해 정구는,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듯하고,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마광이 격물치지의 학문과 主敬의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려가 동요되는 점이 있어 程子の 기룡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이의 설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셋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경덕의 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경덕의 성의의 경지에 대해 함부로 의논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⁴⁹⁾ 이러한 정구의 답변 속에는 성

48) 李珥, 『栗谷全書』 권32, 語錄下, 牛溪集. “問于栗谷先生曰 誠意正心何別 答曰 誠意 眞爲善而實去惡之謂也 正心 是心無偏係期待留滯 且不起浮念之謂也 正心最難 如司馬溫公 誠意 而每爲念慮所攪擾 是不得正心也 雖然若眞誠意 則去正心不遠 所謂眞誠意者 格物致知 理明心開 而誠其意之謂 以此言之 溫公致知不精 不能到得眞誠意境界也 曾見花潭行錄 門人問花潭曰 先生地位何如 花潭曰 到得誠意 未知花潭到眞誠意境界也 其自言曰 知得十分盡處 此必不能眞知也 若是眞知 則道理無窮 豈可以知到十分自處乎 未能眞知 則恐難到得眞誠意也”

의·정심에 대한 해석은 물론, 사마광의 성의에 대한 정자의 기룡을 수용하면서 그 이유를 격물치지의 학문과 主敬의 공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즉 격물치지의 진리탐구와 主敬을 바탕으로 한 성의·정심의 실천공부가 두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강집』 속집 권9에는 『대학』 誠意에 대해 장현광이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 역시 金長生이 혹자의 질문에 답한 설을 근거로 장현광이 정구에게 질의한 것이다.⁵⁰⁾ 그 요지는 喜怒哀懼愛惡欲의 七情과 정심장의 四有所와 수신장의 五僻은 모두 心之用인데, 意가 발하는 바가 매우 다양하지만 好·惡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의장에서 善을 好에 惡을 惡에 해당시켜 언급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장현광은 이런 자신의 견해가 옳은 지 그른 지를 정구에게 질의하였는데, 정구는 “情이 발하는 바는 매우 다양하지만 자신을 誠되게 하는 방법은 好善惡惡하여 선을 꼭 채우고자 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마음이 발하는 바를 선으로 꼭 채워 毋自欺하면 발하는 바가 천백 가지로 다를지라도 모두 하나의 誠 안에 들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⁵¹⁾

49) 鄭述, 『寒岡集』續集 권9, 「答問-張德晦問」, “司馬溫公天質粹美 自然忠信篤實 而初未嘗用力於格致之學主敬之功 故未免有紛擾之患 而爲程子之所譏也 花潭問答之辭 未之得見其所到地位 亦未之敢議焉”

50) 그것은 장현광이 질의한 내용이 김장생의 『沙溪遺稿』 권4 「答或人問目」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51) 鄭述, 『寒岡集』續集 권9, 「答問-張德晦問」, “或問曰 緣情爲意也 或喜或怒或哀或懼或愛或惡或欲 與正心章之忿懣恐懼等四者及修身章之親愛賤惡等五者 皆心之用也 而意之所發千百種 而大學誠意章 只以好惡二者之意爲言者 是何也 答曰 情之所發 當喜而喜 當怒而怒 當哀而哀 當懼而懼 當愛而愛 當惡而惡 當欲而欲 是皆情之善者 意之所當好也 不當喜而喜 不當怒而怒 不當哀而哀 不當懼而懼 不當愛而愛 不當惡而惡 不當欲而欲 是皆情之惡者也 意之所當惡也 大抵事雖萬端 而不過善惡兩者 意雖千變 而亦不出好惡二者而已 故誠意章 以善當好 如好好色 以惡當惡 如惡惡臭也 未知是否 <답> 情之所發 雖千種百端

이러한 정구의 답변은 장현광의 질문에 답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誠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好善惡惡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싹튼 생각을 선으로 짝 채워 眞實無妄의 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毋自欺가 성의장의 공부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본집 권7에 실린 「答任卓爾」의 내용 중에는 『심경부주』 권2 『대학』 정심장 해석으로 수록된 楊時(龜山楊氏)의 설에 대한 견해가 있다. 이 양시의 설은 『심경발휘』에는 삭제되었다. 「答任卓爾」를 보면, 문인 任屹이 “성의를 물었는데 무엇 때문에 정심으로 답한 것입니까?”라고 묻자, 정구는 “비록 정심을 말했으나, 意誠이 아니면 마음은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 성의는 저절로 정심 속에 있는 것이다. 대개 治平工夫를 말할 적에도 모름지기 이 마음이 주장하니, 그가 정심을 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답하였다.⁵²⁾ 이를 통해 볼 때, 정구는 誠意·正心·修身 중 正心 속에 본체공부가 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3조목은 모두 마음이 발하고 난 뒤의 心之用에 관한 공부를 말한 것이므로 心之體에 해당하는 공부가 없다.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들은 『대학장구』 정심장 章句의 ‘敬以直之’를 본체를 기르는 存養工夫로 보고, 그 효용을 장구의 ‘此心常存’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본문의 ‘其正’은 體로, 正其心은 用으로, ‘不得其正’은 忿懣 등 四有所를 省察하지 못해 欲動情勝한 것으

而所以誠之者 要不過乎好惡欲其實而已 實其心之所發而毋自欺 則雖千種百端之殊 而皆囿於一誠之中矣”

52) 鄭述, 『寒岡集』 권7, 答問, 「答任卓爾」, “修身在正其心章 附註 第五圈大註 問大學誠意云云 答曰無人正心云 問誠意 何以以正心答之邪 / 雖說正心 而非意誠 則心不得其正 誠意自在正心之中 大槩說治平工夫 須此心主張 要說正心 其以是歟”

로 보았다. 정구가 ‘성의는 저절로 정심 속에 있다.’고 한 언급을 보면, 그는 정심 속에 본체공부가 들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강집』 속집 권9에는 아래와 같은 장현광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있다.

질문 : 정심장은 참으로 존양과 성찰을 겸하고 있습니다. 經文의 ‘欲正’은 心之用이고, ‘先正’은 心之體입니다. 퇴계 선생의 말씀에 “정심장은 오로지 성찰만을 말하고 존양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 근본을 바르게 하지 않고서 그 말단을 바르게 할리가 있겠습니까? 정심장 소주 雲峰胡氏의 설에 “이른바 정심이란 그 心之用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대개 心之用에는 혹 不正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 ‘不得其正’의 正 자는 心之體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는 ‘在正其心’과 ‘不得其正’의 두 正 자는 모두 體·用을 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떠합니까?

답변 : 퇴계 선생의 설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도 이장의 요지가 그 心之用을 성찰하여 敬以直之의 공부를 더하는 데 오로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운봉호씨의 말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53)

성의·정심·수신은 已發의 성찰공부에 중점을 두어 말한 것으로 未發의 存養工夫를 말한 것이 없다. 그러나 존양 없이 성찰을 언급하는 것은 본체를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주희는 “君子必察乎此 而敬以直之 然後此心常存”이라고 주석하여 존양공부를 언급하였다. 장현광은 정심장이 존양·성

53) 鄭述, 『寒岡集』續集 권9, 「答問-張德晦問」, “正心章 固兼存養省察 欲正 其心之用 先正 其心之體也 退溪先生之言曰 專言省察 不言存養 此言不得領會 豈有不正其本正其末之理乎 雲峯胡氏曰 所謂正心者 正其心之用 蓋心之用 或有不正 不可不正之也 不得其正此正字 是說心之體 愚意在正其心及不得其正兩正字 竝兼體用看 如何 <답> 退溪先生之說 不知所以云 豈非以此章之旨 專在於察其心之用而加敬直之功者乎 雲峯之言 恐亦別無可疑”

찰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로 經文의 ‘欲正其心’은 用을, ‘先正其心’은 體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황이 정심장에 대해 성찰만 말하고 존양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대전본 정심장 소주 운봉호씨의 설에 ‘不得其正’의 正은 心之體를 말한 것이라는 설에서 정심장에는 心之體를 말한 것이 있다는 점을 확신한 듯하다. 그리고 ‘不得其正’·‘在正其心’의 ‘正’ 자는 모두 體만 말한 것이므로 정심장은 體用을 겸해 말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장현광의 질문에 대해, 정구의 답변은 이황과 운봉호씨의 설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데에서 그쳤을 뿐, 장현광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봉호씨의 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점으로 보면, 정구 역시 정심장에 體가 들어있다고 본 것이다.

또 장현광은 제가치국장의 化와 推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仁山金氏(金履祥)의 설과 주희의 설을 참조하여 서로 다른 점을 논하면서 ‘如保赤子’ 1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⁵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4) 鄭述, 『寒岡集』續集 권9, 「答問-張德晦問」. “齊家治國章仁山金氏註曰 此章竝含兩意 自章首至成教於國一節 是化 三所以 是推 如保赤子 繼慈者使衆而言 是推 一家仁以下一節 是化 帥天下一節 是化 有諸己一節 繼所令反其所好而言 是推 三引詩是化云云 而朱子論此章曰 此且只說動化爲本 未說到推上 就考兩說而觀之 則首一節 專是化 而帥天下有諸己以下 皆是化 蓋有諸己無諸己所藏乎身 是皆言修己 語勢重在於此 而求諸人非諸人喻諸人等文字 雖是推 似不必力觀 但如保赤子一節 終是有推意 而未詳朱子之旨也”

제가치국장		대전본 소주 朱熹의 설	仁山金氏의 설	張顯光의 설
제1절	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不出家而成教於國 孝者 所以事君也……慈者 所以使衆也	動化爲本	化	化
제2절	康誥曰 如保赤子……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		推	推意
제3절	一家仁 一國興仁……此謂一言僨事 一人定國		化	
제4절	堯舜帥天下以仁而民從之……而民不從 是故 君子有諸己而后求諸人……未之有也		化	化
제5절	故治國在齊其家		推	化
제6절	詩云 桃之夭夭 其葉蓁蓁……可以教國人		化	化
제7절	詩云 宜兄宜弟 宜兄宜弟而后 可以教國人		化	化
제8절	詩云 其儀不忒 正是四國……民法之也		化	化
제9절	此謂治國在齊其家			

주희는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고, 『대학장구대전』 小註에 “此且只說動化爲本 未說到推上說 後方全是推說”이라는 설이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정구는 『주자어류』를 근거로 대전본 소주에 인용된 문장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혹자가 ‘治國在齊其家’에 대해 질문하자, 주자가 답하기를 ‘이는 또한 動化로 공을 삼은 것일 뿐, 설이 推 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다음장이 오로지 推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로 살펴보건대, 이 소주는 위의 절(제1절)에 속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如保赤子’(제2절) 1절 밑에 편입되었고, 또 ‘章’ 자를 빠뜨렸으며, 또 ‘功’ 자를 잘못 ‘本’ 자로 써 놓았다. 그러므로 후학들이 모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심을 하는 것이다.”⁵⁵⁾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정구의 설은, 주희는 제가치국장을 해석하면 化로 보았지 推로

55) 上同. “有問治國在齊其家 朱子曰 且只說動化爲功 未說到推上 後章方專是說推云云 以此觀之 此條當屬上節 既誤入於如保赤子之下 又脫章字 功字又誤作本字 所以後學皆未曉其義而致疑也”

보지 않았다는 것과 대전본 소주의 설이 잘못되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제가치국장을 齊家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 것이다.

2. 『中庸』해석의 一面貌

1) 『심경발휘』의 해석

『심경발휘』 권2에는 『중용장구』 제1장 및 제33장 제2절·제3절에 대한 주석을 새로 발췌해 놓은 것이 다수 있다. 이 두 장의 주석은 『심경발휘』 권1 제12장·제13장에 실려 있다. 먼저 『중용장구』 제1장에 대한 주석을 새로 발췌해 놓은 것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중용장구』 제1장 해석

인용 주석	心經附註	心經發揮	출전	비고
朱子曰子思首明道之本原出於天	○	○	중용장구 제1장 註	
又曰道者日用事物當然之理	○	○	중용장구 제1장 註	앞부분 보충
又曰隱暗處也微細事也	○	○	중용장구 제1장 註	
附註:程子答問 朱子答問	○		중용혹문 제1장 小註	삭제
道鄉鄒氏曰慎獨最爲入道之要	○	○	西山讀書記 권18	
朱子曰先言道不可離而君子必戒		○	중용혹문 제1장	보충
又曰既言道不可離則是無處而不		○	중용혹문 제1장	보충
○又曰戒謹不睹恐懼不聞即是道不		○	주자어류 권61	보충
○又曰所不聞所不見不是合眼掩耳		○	주자어류 권62	보충
○問不知無事時如何戒謹恐懼	○	○	주자어류 권62	뒤에서 옮김
○又曰戒謹恐懼不須說得太重		○	西山讀書記 권18	뒤에서 옮김
○又曰戒謹恐懼是未發然只做未發		○	주자어류 권62	보충

○問恐懼是已思否曰思又別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先就睹聞處做了却說不睹		○	西山讀書記 권18	보충
○又曰戒謹恐懼是善說言道理		○	주자어류 권62	보충
○問謹獨曰是從見聞處至不睹		○	주자어류 권62	보충
○問能存天理了則下面謹獨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戒謹恐懼只是略省		○	주자어류 권62	보충
○問謹獨是念慮初萌處否曰	○	○	주자어류 권62	뒤에서 옮김
○又曰這獨不是恁地獨時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戒謹不睹恐懼不聞非謂於睹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方不睹不聞未有私欲之際		○	주자어류 권114	보충
○又曰戒謹恐懼是事之未形處		○	주자어류 권62	보충
○問戒懼是保守天理		○	주자어류 권62	보충
○胡氏季隨曰戒懼者所以涵養於		○	회암집 권53 「答胡季隨」	뒤에서 옮김, 보충
○又曰李先生云賴天之靈常在目前		○	주자어류 권113	보충
蘇季明問喜怒哀樂未發之前	○	○	근사록 권4 「涵養吾1」	以下論中和
朱子曰程子纔思卽是已發一句	○	○	晦庵集 권48 「答呂子約」	
○又問呂學士言當求於喜怒哀樂		○	근사록 권4 「涵養吾1」	보충
○又問於喜怒哀樂發時因當勉強		○	근사록 권4 「涵養吾1」	보충
○問當中之時耳無聞 /附:朱子曰雖		○	근사록 권4 「涵養吾1」 / 附:小註	보충
○問未發之時自有一般氣象 /附:朱子曰伊川先生所謂		○	중용혹문 제1장 소주 / 附:회암집 권32 「答張欽夫」	보충
問涵養於未發之初令不善之端	○	○	주자어류 권113	뒤에서 옮김
○曰賢且說靜時如何曰謂之 /附:朱子曰靜中有箇覺處		○	근사록 권4 /附:주자어류 권62	보충
問未發之前當戒慎恐懼		○	주자어류 권96	보충
○或曰莫是於動上求靜否曰		○	중용혹문 제1장 소주	보충
或曰先生於喜怒哀樂未發之前下動 /附:朱子曰未發之前不可尋覓	○	○	주자어류 권96 /附:晦菴集 권64 「與湖南諸公論中和第一書」	
或曰靜中有物莫是先生所謂知覺		○	주자어류 권96	보충
問敬莫是靜否曰敬則自然靜		○	주자어류 권96	보충

問此物云何曰只太極也		○	주자어류 권96	보충
或曰當靜坐時物之過乎前者 /附: 呂子約謂未有聞	○	○	증용혹문 제1장 소주 / 附: 회암집 권48 「答呂子約」	
又曰未發更怎生求	○		회암집 권67 「已發未發說」	삭제
又曰善觀者却於已發之際	○		회암집 권67 「已發未發說」	삭제
延平李氏與朱子書曰某囊時	○		延平問答	삭제
朱子答何叔京書曰李先生教人	○		회암집 권40 「答何叔京」	삭제
西山眞氏曰朱子於呂氏求中之說 / 附: 按	○		西山讀書記 권2	삭제
問喜怒哀樂未發之初不知戒懼心	○		木鍾集(宋 陳埴) 권8	삭제
又曰謹獨是就中有一念萌動處	○		주자어류 권62	삭제
西山眞氏曰自昔諸儒之釋中庸	○		大學衍義 권29 「崇敬畏」	삭제
又曰中者天下之大本天地之間		○	회암집 권61 「答林德久」	보충
朱子曰只是常敬便是喜怒哀樂未發		○	주자어류 권95	보충
○又曰敬而無失便是喜怒哀樂未發		○	회암집 권67 「已發未發說」	보충
或問程子之言敬而無失者奈何		○	西山讀書記 권19	보충
又曰敬而無失便是常敬這中底便當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此語至約是眞實下工夫處		○	회암집 권42 「答胡廣仲」	보충
又曰此言人能持敬而無間斷則		○	西山讀書記 권19	보충
○朱子曰天命之性萬理具焉喜怒哀		○	증용혹문 제1장	보충
○又曰喜怒哀樂未發謂之中只是思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大本用涵養中節則須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大抵未發已發只是一項工夫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已發未發不必太泥只是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未發時着義理不得		○	증용장구대전 제1장 소주	보충
○又曰如涵養熟者固是自然中節		○	주자어류 권62	보충
○又曰敬以直內而喜怒哀樂無所偏		○	회암집 권67 「中庸首章說」	보충
○答張敬夫書曰人之一身知覺運		○	회암집 권32 「答張敬夫」	보충
○答林擇之書曰大抵心體通有無該		○	회암집 권43 「答林擇之」	보충
○答胡季隨書曰夫謂未發之前不可		○	회암집 권53 「答胡季隨」	보충
○與湖南諸公論中和書曰中庸未發		○	회암집 권64 「與湖南諸	보충

			公論中和第一書」	
○答河叔京書曰李先生教人大抵		○	회암집 권40 「答河叔京」	보충
○延平先生行狀云既從羅公學講誦		○	西山讀書記 권2	보충
○楊道夫言羅先生教學者靜坐中看		○	주자어류 권102	보충
○西山眞氏曰朱子於呂氏求中之說		○	西山讀書記 권2	보충

이를 보면, 정구는 『심경부주』의 설 6조는 그대로 두고, 4조는 위치를 이동하고, 9조는 삭제하였으며, 새로운 주석 50조를 발췌해 보충한 것을 알 수 있다. 삭제한 설은 제1장의 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未發已發說이고, 보충해 놓은 것은 제1장의 요점인 戒懼·慎獨·中和(喜怒哀樂之未發已發)에 관한 설이다. 특히 戒懼·慎獨에 관한 설을 다수 보충해 놓은 것을 보면, 戒慎恐懼와 慎獨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未發·已發도 喜怒哀樂의 中·和를 중심으로 한 설을 다수 발췌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미발·이발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이 아니라 심성수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중용장구』 제33장 제2절·제3절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심경발휘』의 설을 『심경부주』와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중용장구』 제33장 제2,3절 해석

인용 주석	心經附註	心經發揮	출전	비고
程子曰學始於不欺暗室	○	○	二程外書 권1	
○又曰不愧屋漏與慎獨這是箇持養	○	○	二程遺書 권2上	원문에 따라 수정
○又曰不愧屋漏則心安而體舒		○	二程遺書 권6	보충
○東萊呂氏曰此言果是好此非但謂		○	麗澤論說集錄 권1	보충
○朱子曰人之所不見此君子謹獨之	○	○	心經 註	
○附註司馬溫公嘗言	○		心經 附註	삭제
○朱子曰三國朱然終日欽欽	○		心經 附註	삭제

按 慎獨乃學者第一義而不可忽	○		心經 附註 按	삭제
○又曰相在爾室是教做存養工夫		○	주자어류 권64	보충
○又曰潛雖伏矣亦孔之昭詩人言語		○	주자어류 권62	보충
○東萊呂氏曰暗室此最是爲學切要		○	麗澤論說集錄 권10	보충
○西山眞氏曰人心至靈毫髮之微	○	○	心經 註	

이를 보면, 『심경부주』의 설 4조는 그대로 두고, 3조는 삭제하였으며, 새로운 설 5조를 발췌해 보충한 것을 알 수 있다. 삭제한 설은 이 2절의 내용과 연관성이 적은 역사적 일화를 소개한 것이며, 보충한 설은 이 2절의 내용과 밀접한 내용으로 慎獨·戒慎恐懼에 관한 것들이다.

2) 기타 단편적인 해석

『한강집』에 산견되는 『중용』 해석을 수집 정리해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제목	내용	비고
본집 권7 답問	答任卓爾	‘人與我固分得’ 1절에 대한 해석	心經附註 中庸 天命之謂性章 程子曰 人只以耳目所見聞者…(二程遺書 권18)
續集 권9 답問	答問(答張德晦問)	‘興起在位’의 해석 ‘執其兩端’의 해석	中庸章句 제27장 註 中庸章句大全 제6장 本文
別集 권3 답問	答任卓爾	‘見知處’의 見 자 音	四書大全·中庸或問 제1장 小註
		‘只是操一操’의 句讀와 吐	朱子語類 권62
		‘只是操一操’의 句讀	朱子語類 권62
別集 권3 답問	答任卓爾	‘看如何地持守’의 諺解	心經附註 尊德性齋章 朱熹의 설(주자어류 권49)
		‘自說得尊德性一邊輕了’의 因해	心經附註 尊德性齋章 朱熹의 설(주자어류 권64)

이를 보면 대체로 『주자어류』에서 인용한 어록체 문장의 懸吐와 諺解에 관한 것과 문구 해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현토와 언해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문구해석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任屹은 『심경부주』 권1의 中庸天命之謂性章에 인용된 程子の 설 가운데 ‘若說人與我固分得 若說天地 只是一箇知也’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과 내가 이미 나누어진 것이라면 天·地는 무엇 때문에 ‘一箇知’라고 말한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정구는 “보내온 편지에 ‘천·지가 만약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남과 다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闕文이 있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과 나는 이미 物我의 간격이 있으니, 혼연일체가 되어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천지의 이치는 一理일 뿐이니, 어찌 一箇知가 아니겠는가?”라고 답하였다.⁵⁶⁾

이 문구는 정자가 『중용장구』 제1장 제3절 ‘莫見乎隱 莫顯乎微’를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이 거문고를 타다가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연주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殺聲을 느꼈다고 하는 고사를 빌어다, 耳目으로 보고 들을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작용과 본체를 논한 말이다. 정구의 답변요지는 남과 나는 개체가 나누어져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누어 말할 수 있지만, 천지는 一理일 뿐이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一箇知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구의 답변은 理一·分殊의 관점에서 體·用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심층적으로 해석한 면이 있다.

56) 鄭述, 『寒岡集』 권7, 答問, 「答任卓爾」, “中庸天命之謂性章 附註 問莫顯乎隱條下曰 若說人與我固分得云 人與我固已分得 則天與地何以曰一箇知也 <답> 來諭 天地若分得 則人與我亦可分得 其間 恐有闕文 人我既有物我之間 恐不可渾淪不分也 天地之理 只是一理 豈非一箇知乎”

한편 장현광은 『중용장구』 제27장 ‘國有道 其言足以興’의 장구에 ‘興起在位’라고 한 문구에 대해, “이 문구는 정치를 補益하여 재위자를 흥기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아래에서 흥기하여 벼슬자리에 있다는 뜻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정구는 “후설의 의미는 상세치 않다. 興은 재능 있는 이를 흥기하고 현인을 흥기한다고 할 때의 興 자와 같다.”라고 답하였다.⁵⁷⁾ 이러한 정구의 답변은 대전본 소주 주희의 설에 “興 如興賢興能之興”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장현광은 또 『중용장구대전』 제6장 ‘執其兩端 用其中於民’에 대한 해석에 ‘백성들이 말한 것 가운데서 그 중도에 맞는 것을 취하여 씀’이라는 설과 ‘두 사람이 말한 것 가운데 양쪽 극단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양단을 택하여 가지고서 백성들을 다스릴 적에는 그 중도를 쓰고 백성들을 교화할 적에도 그 중도를 쓴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옳은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구는 전설이 옳다고 하면서 대전본 소주에도 그와 같은 주희의 설이 실려 있다고 하였으며, 또 후설의 ‘擇’ 자는 의미가 자세치 않고 ‘執’ 자는 가지고 헤아린다는 뜻일 뿐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⁵⁸⁾

전설은 대전본 소주에 있는 주희의 설이고, 후설은 누구의 설인지 자세치 않다. 정구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전설을 옳다고 보았는데, 그

57) 鄭述, 『寒岡集』續集 권9, 「答問-張德晦問」. “中庸 國有道其言足以興 註曰 興起在位 問裨益政治興起在位之人乎 自下而興起在爵位乎 <답> 後說之意未詳 朱子曰 興如興能興賢之興”

58) 鄭述, 『寒岡集』續集 권9, 「答問-張德晦問」. “中庸曰 執其兩端 用其中於民云云 問用其中於民之說 或云人有功當賞 一人言當賞千金 一人言當賞百金 千金之說爲是 則當賞千金 百金之說爲是 則當賞百金 於民之所言 取用其中也 又有一說云 二人之所言 有兩端之異 而擇執其兩端 於治民用其中 於教民用其中 先後二說 何者爲得 <답> 前說分明 本章細註 亦詳朱子之訓 後說擇字 似未詳 執者 只是把來量度”

이유로 주희의 설도 그와 같다는 점과 문구의 해석상 후설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정구의 해석은 주희의 설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성향과 대전본 소주의 설도 정밀하게 궁구하는 성향을 보여주며, 文句의 字義를 정밀하게 해석하려는 성향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정구의 경서해석 가운데 『대학』과 『중용』 해석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정구는 어려서부터 구도적 지향을 하여 博學과 實得을 추구하였으며, 體認·體察·體驗·體行의 몸으로 하는 공부를 견지하였다. 또한 근본을 두텁게 배양하기 위해 내면공부에 치력하였는데, 思無邪·毋自欺·慎其獨 등을 핵심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敬을 聖學의 근본으로 보고 敬工夫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공부론에는 조식의 영향이 짙게 스며있다. 또한 정구는 도문학·존덕성의 공부를 병행하되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敬을 바탕으로 한 存養·省察을 중시하는 경학관을 견지하였다. 그는 이런 관점에 의해 『심경』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 敬의 의미를 발휘하여 『心經發揮』를 편찬하였다.

정구의 학문은 ‘敬’ 한 자로 집약되는데, 『심경발휘』를 통해 드러내었다. 그는 程敏政의 『心經附註』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체계를 개편하였는데, 가장 큰 특징이 三經·四書·宋儒說을 卷別로 분류하여 心學의 연원과 체계를 명료하게 구별한 점과 四書의 배열도 心之體와 心之用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구별한 점이다.

『대학』해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심경발휘』 성의장의 주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17조를 삭제하고 18조를 보충하였는데, 삭제한 설은 天德·誠·自欺 등 형이상학적 내용인 반면, 보충한 설은 毋自欺·慎其獨 등 구체적 실천에 관한 내용이다. 또 정심장의 주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37조를 삭제하고 25조를 보충하였는데, 삭제한 설은 정심장과 관련된 범범한 내용이고, 보충한 설은 정심 공부의 핵심인 四有所에 관한 내용으로 心之用の 省察工夫에 역점을 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정구는 성의·정심·수신의 行에 중점을 두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집에 산견되는 『대학』해석의 특징은, 主敬을 바탕으로 한 誠意·正心の 실천공부를 중시하며, 誠意章 해석에서 毋自欺 등 심성수양을 중시하며, 正心章 해석에서 心之體에 관한 存養工夫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며, 齊家治國章 해석에서 齊家에 중점을 두어 化만 말한 것으로 본 것이다.

『중용』해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심경발휘』에 수록된 제1장의 주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9조를 삭제하고 50조를 새로 발췌해 놓았는데, 삭제한 설은 未發·已發에 대한 설이고, 보충한 설은 戒懼·慎獨·中和에 관한 설이다. 특히 미발시의 戒愼恐懼와 이발시의 慎獨을 존양·성찰의 공부로 중시하고 있다. 이는 미발이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보다는 심성수양과 관련된 실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음 『중용장구』 제33장 제2절·제3절의 해석을 『심경부주』의 주석과 비교해 본 결과, 3조를 삭제하고 5조를 새로 보충하였는데, 삭제한 설은 이 2절과 연관성이 적은 내용이고, 보충한 설은 이 2절과 밀접한 것으로 慎獨과 戒愼恐懼에 관한 내용이다. 또 문집에 산견되는 『중용』 해석에 관한 내용

을 검토해 본 결과, 전대의 설보다 더 심층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으며, 대전본 소주의 설과 문구의 字義를 정밀히 해석한 측면도 있다.

정구의 『대학』·『중용』 해석 성향은 전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면모를 살펴보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통해 볼 때, 정구는 정밀한 해석을 추구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세밀한 탐구를 하기보다는 대의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돌이켜 실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성향은 남명학의 실천주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고, 또 도덕성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대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 듯하다.

道學은 明道와 行道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구는 퇴계학의 明道の 측면과 남명학의 行道의 측면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 성리학설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것이 거의 없고, 또 시를 玩物喪志라 여겨 경계한 시를 지은 것이 매우 적으며, 경서해석에 있어서 程朱의 설에 의거해 정밀한 해석을 추구하면서도 심성수양의 실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보면, 知보다는 行에 무게중심이 있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明體適用의 학문을 추구하였는데, 한강학에 있어서는 심성을 수양하여 動靜에 늘 敬을 유지하는 것이 明體에 해당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속에서 응용하는 것이 適用에 해당한다. 그는 「心經發揮序」에서 요순 이래로 마음을 다스리는 惟精惟一의 공부는 敬 한 글자로 귀결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子思가 『중용』을 지으면서 戒愼恐懼를 말한 것, 曾子가 『대학』을 기술하면서 誠意正心을 말한 것도 대개 敬 아님이 없으며, 예악의 근본을 구해보면 또한 敬이다.”⁵⁹⁾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정

59) 鄭述, 『寒岡全書下』, 『心經發揮』, 『心經發揮序』. “至於子思子之戒懼 子曾子之誠正 蓋無

구는 敬을 大旨로 하는 心學을 明體로, 예학 등을 適用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구는 사서육경을 근본으로 하여 그 대의를 취해 현실에 유용한 심학과 예학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實錄廳, 『宣祖修正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李珥, 『栗谷全書』(한국문집총간 제44책), 한국고전번역원.
 李滉, 『退溪集』(한국문집총간 제29책), 한국고전번역원.
 鄭述, 『寒岡全集』上下,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5.
 鄭述, 『寒岡集』(한국문집총간 제53책), 한국고전번역원.
 曹植, 『南冥集』(한국문집총간 제31책), 한국고전번역원.
 朱熹, 『大學章句』, 학민문화사 영인본.
 胡廣等編, 『大學章句大全』, 학민문화사 영인본.
 우경섭, 「한강 정구의 학문연원과 도통적 위상」,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26-27쪽.
 李佑成, 「寒岡全集 解題」, 『寒岡全集』, 여강출판사, 1985, 1-10쪽.
 전재강, 「『심경발휘』에 나타난 정구 심학의 특성 - 『심경부주』와의 대비적 관점에 서 -」,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2, 158-164쪽.
 崔錫起, 「南冥의 成學過程과 學問精神」, 『남명학연구』 창간호,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1, 79-80쪽.
 _____, 「星湖의 大學·中庸 解釋과 意味」,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무늬, 2012, 26-29쪽.

非敬焉 而求之禮樂之本 則亦敬也”

Abstract

A Study on Hangang Jeong Gu's Views of Chinese Classics and Interpretations of *Great Learning* and *The Doctrine of the Golden Mean*

Choi, Seok-Ki

This study summed up the study theories and views of Chinese classics of Jeong Gu(1543-1620) and examined his interpretations of *Great Learning* and *The Doctrine of the Golden Mean*.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Being oriented toward the efforts of seeking truth at an early age, Jeong Gu sought after erudition and practical interest and stuck to the study of Chein, Chechal, Cheheom and Chehaeng. He also devoted himself to inner study, placing significance on Samusa, Mujagi, and Shingidok. Regarding Gyeong as the root of Seonghak, he was committed to the study of Gyeong. Those study theories of his were influenced by Jo Shi, his master. He kept the view of Chinese classics of studying both Domunhak and Jondeokseong and placing importance on Jonyang and Seolchal based on Gyeong in the practice methods. Taking that perspective, he found the base of his study in *Shimgyeong* and published *Shimgyeongbalhui* by exhibiting the significance of Gyeong.

His study can be integrated into "Gyeong," which is demonstrated in his *Shimgyeongbalhui*. He reorganized *Shimgyeongbuju* by Jeong Min-jeong. Some of its biggest characteristics are distinguishing the origins and systems of Shimhak clearly by categorizing the Three Classics, Four Books, and Songyuseol by the volumes and dividing the arrangement of Four Books into the Shimjiche and Shimjiyong parts.

His interpretations of *Great Learn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udy compared the Seonguijang annotations of *Shimgyeongbalhui* with the annotations of *Shimgyeongbuju* and found that 17 articles were deleted and 18 were supplemented. The deleted ones covered metaphysical content such as Cheondeok, Seong, and Jagi, whereas the supplemented ones covered the content of specific practice such as Mujagi and Shingidok. The study also compared the annotations of Jeongshimjang with those of *Shimgyeongbuju* and found that 37 articles were deleted and 25 were supplemented. The deleted ones covered common content related to Jeongshimjang, whereas the supplemented ones covered the content of Sayuso, the core of Jeongshim study.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he focused on the specific and practical aspects of action.

His interpretations of *Great Learning* found throughout his collections of works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he placed importance on the practice study of Seongui and Jeongshim based on Jugyeong; second, he placed importance on the practice study of mind cultivation such as Mujagi in his interpretations of Seonguijang; third, he considered Jonyang study about Shimjiche included in the interpretations of Jeongshimjang; and finally, he mentioned only Hwa in the interpretations of Jegachigukjang with a focus on Jega. Those interpretations of his are characterized by his focus on the cultivation of mind based on Jugyeong.

His interpretations of *The Doctrine of the Golden Mean*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study compared the annotations of Chapter 1 in *Shimgyeongbalhui* with those of *Shimgyeongbuju* and found that nine articles were deleted and 50 were newly extracted. The deleted ones addressed the theory of Mibalyibal, whereas the supplemented ones did the theories about Gyegu, Shindok, and Junghwa. He put special emphasis on Gyeshingonggu of Mibal and Shindok of Yibal as the study of Jonyang and Seongchal, which indicates that he focused on the practical aspects rather than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e study also compared the interpretations of Sections 2 and 3 in Chapter 33 of *Jungyongjanggu* with the annotations of *Shimgyeongbuju* and found three articles were deleted and five were newly supplemented. The deleted ones covered the content whose connections to Section 2 were fewer, whereas the supplemented ones covered content about Shindok and Gyeshingonggu,

being closely connected to Section 2. The study reviewed the content about his interpretations of *The Doctrine of the Golden Mean* found throughout his collections of works and found that he did more in-depth interpretations of certain aspects than previous theories and exhibited a tendency of interpreting closely the meanings of theories and phrases in Soju of Daejeon version.

Key Word

Jeong Gu, study theory, view of Chinese classics, *Shimgyeongbalhui*, interpretation of *Great Learning* and *The Doctrine of the Golden Mean*.

- 논문투고일 : 2016.1.6. 심사완료일 : 2016.2.4. 게재결정일 : 2016.2.12.